

# “삶에 대한 질문과 대답 모색하는 게 詩죠”

등단 30년만에 첫 시집 낸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윤석진 시인

### ‘고향’ 등 구체적 일상 담은 ‘내 시간의 풍경’ 퍼내 정치현실·부조리 등 사회 풍자 담은 작품도 수록 ‘관념화 된 시 공감 힘들어...시인들 함께 고민해야’

시인은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삶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사냥꾼이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해 사냥견을 직접 길렀다. 정확히 말하면 강아지를 사다가 사냥견을 조련했다. 개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아버지는 멧돼지 우리에 개를 집어넣었다. (아버지는 사냥견 훈련을 위해 멧돼지도 길렀다) 이때 개들은 성향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

“관심 없이 판친 피우는 놈, 뿔뿔뿔뿔 바라보는 놈, 뒷다리 세에 꼬리 끼우고 도망치는 놈, 다짜고짜 짚으며 달려드는 놈. 그 풍경 속에서 선친은 절절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냥개는 사냥감을 알아보는 본능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다.”(‘아버지의 수업’ 중에서)

그 아들은 자라서 시인이 됐다. 삶의 다양한 풍경을 자신만의 언어로 그리는 문인이 된 것이다. 곡성 출신 윤석진 시인(60). 199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한 시인은 등단 30년 만에 첫 시집 ‘내 시간의 풍경’을 발간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그는 그동안의 창작과 자신의 삶을 단 한편의 시집에 담아냈다.

‘왜 이제야 작품집을 발간했느냐’는 물음에 시인은 “시를 씀으로써 무언가(명예 또는 이름 따위 등)를 얻고 싶은 것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치열하게 시를 쓰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과작(寡作)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성정을 미루어 알고 있는 기자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 윤 시인과는 15년 전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하던 즈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때도 그는 그냥 시가 좋아서 시를 쓰는 말 그대로 ‘시인’으로 존재했다. 비록 창작집을 내지는 않았지만 “늘 시를 생각했다”는 말에서 그의 문학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서른 살에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니 광주일보가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시세계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시를 쓸 수 없었어요.”

그는 전남대 중문과(80학번)를 졸업하고 잠시 사회생활을 했다. 신춘문예 당선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써왔던 시를 투고한 게 계기가 됐다. 이후 좀더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전남대학교원 국문과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학위를 받고 한때 강사로 활동하면서 창작을 했지만 발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시는 ‘인간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창작자와 독자가 인간이고, 시적 내용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란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인간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데 시가 ‘봉사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당위겠지요.”

그 때문이었을까. 이번 시집에는 철저히 삶과 밀착된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삶은 시간이라는 추상적 흐름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실제”라는 것이다.

“높은 귀목나무가 동구름/ 지기는 산골마을/ 곱슬머리와 부사리 눈/ 씨익 웃으면 빠드렁니 엮보이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 절도 들기 전에 동무들/ 황량한 세상을 향해/ 風媒花처럼 흩날릴 때는/ 귀목나무 곁에서 있었습니까(중략)”

‘고향’은 어린 시절 고향의 풍경이 구체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형상화된다. 화자의 경험이 실제적이면서도 정감있게 투영돼 있다. 그러나 ‘이제 귀목나무도 없는/ 적막한 산골마을/ 높은 농부 하나 살고

있습니다’처럼 지금의 고향은 쓸쓸하고 적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작품에는 정치 현실과 시국,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풍자를 담은 비판적 시도 있다. ‘주어가 없다’라는 작품에서는 ‘진실’을 왜곡하려는 정치인의 민낯을 볼 수 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그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모국어쯤은 문장을, 주어가 없다/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문맥을 고려할 줄 모르는/ 지인이 수준의 文筆力/ 언죽 번죽 세상 떠들썩하게 떠벌리며/ 희대의 큰 도둑놈을 변호했다...”

또한 작품집에는 나름의 형식을 실험한 시도 있다. 시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이거나(‘복사꽃’), 직접화법을 따옴표 없이 형상화한 작품(‘道’)도 눈에 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되뇌이고 묵혀 자신만의 사유와 정갈한 언어로 갈무리한 작품들은 절창에 가깝다.

윤 시인은 시를 쓰면서 아닌 “시의 생산자로서 항상 고민하는 게 독자와의 만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관념화 돼 가는 오늘날의 시는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이에 대한 시인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분간 고향 곡성 경면을 오가며 농사일과 시를 쓸 계획이다. 고향에 노모가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과일 숙이나 농약치기와 같은 일”은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창작에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2년에 한번 꼴로 시집을 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어요. (웃음) 그러나 삶이 치열할수록 완성도 높은 시가 나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에 좀더 창작에 열정을 쏟을 생각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강렬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관객들의 기립박수 속에 상대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많은 가능성(potential)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무덤이예요. 늘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비올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그러면 ‘시체를 발굴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캐내요’라고 말해요. 큰 꿈을 꾸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에 빠진 뒤 실연한 사람들의 이야기... 전 예술가가 됐습니다. 예술가는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축하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

누구니?’. ‘난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2주후 그가 ‘너의 영웅은 누구니’라고 묻자 ‘10년 후 저예요’라고 했어요. 25살이 되자 그는 ‘이제 영웅이 됐니’라고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근처에도 못갔어요’라고 말했죠. 그가 ‘어째서?’라고 묻자 ‘제 영웅은 35살의 저니까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제 영웅은 늘 저로부터 매일, 매주...10년이나 멀어져 있었어요. 아마 전 ‘영웅’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할테니까요.”

매년 연말이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모르는 이에게 감사 인사로 시작해 감사 인사로 끝나는 국내 영화제나 방송

## 수상 소감의 품격

(professional)이예요.”

지난 2017년 2월,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펜스’(Fences)에 출연해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비올라 데이비스의 수상 소감이다.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세 차례 후보에 지명된 흑인 배우는 마침내 이날 영예의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위트 넘치는 소감으로 객석의 박수를 이끌어낸 스타도 있다. 지난 2014년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미국 배우 매튜 매커너하. 흰색 턱시도 차림으로 시상식에 선 그는 “살면서 결코 잊지 않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존재(가족), 내가 쫓을 수 있는 존재(영웅)이다”고 말했다.

“15살 되던 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몰랐습니다. ‘너의 영웅은

대상 시상식의 수상 소감과는 ‘클래스’가 다르다.

옛그제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이라는 기념비적인 쾌거를 이룬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소감이 잔잔한 여운을 주고 있다. 지난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1인칭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는 명언으로 화제를 모은 그는 이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에서 허락한다면 이 트로피를 텍사스 전 기쁨으로 잘라서 (다른 후보 감독들과 함께) 오동분 해 나누고 싶다”고 말해 웃음과 환호를 받았다. 각본상을 받은 후에는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다. 국가를 대표해서 쓰는 건 아닌데, 이 상은 한국이 받은 최초의 오스카상”이라고 말해 감동을 선사했다. ‘기생충’에 이은 또 하나의 아카데미상감이 아닐 수 없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도서관·박물관·미술관마다 ‘생활문화동호회’ 운영

문체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10월 문화의달 행사 지역축제로

앞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지역민이 문화모임을 구성해 활동을 할 수 있는 ‘1관(館)1단(團)’이 운영된다. 또한 지역순회 방식으로 진행해 온 10월 ‘문화의 달’ 행사를 한달 내내 다양한 지자체 행사와 연계해 축제행사로 치르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0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 문화’라

는 비전을 토대로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등 4대 전략과 15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제정을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1.6%(3조7000억원) 수준을 2024년 1.8%(5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도시와 읍면지역 문화에 대한 예산을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낮출 방침이다.

먼저 문체부는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법, 제도와 재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자치와 분권의 지역문화 원칙을 명시하고 지자체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문화 수요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부분은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 있지만 문화행사나 동호회 참석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마다 지역주민이 생활문화동호회를 구성,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의 거점이 될 생활문화센터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191개소 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는 올해 161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고유한 지역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방언과 언어문화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역어 사전, 지역 언어문화 지도 등도 제작해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4년까지 문화도시를 최대 30곳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가족친화인문사회 진단’ 포럼

가족의 미래와 개념에 대한 성찰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최근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가족친화인문사회에 대한 진단과 탐색’을 주제로 제1회 국가전략포럼을 가졌다.

‘가족의 미래와 가족친화인문사회’라는 주제를 토대로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 가족친화종합지수의 변화와 지

역별 격차’ (고광아·오영은·추주희 HK 연구교수)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 척도를 통한 가족관계의 질을 담보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분야를 검토했다.

‘가족친화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적 고찰’ (강의혁·류도향 인문학연구원 HK교수)에서는 인문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권리를 분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 style="text-align: center;">국수나무광주용봉점(비엔날레)</h3>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앱주문(배달의민족,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h3 style="text-align: center;">연아불교용품</h3> <p>전남나주시 영산포로261-1(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양, 양초 판매 ☎ 061)334-0088</p>	<h3 style="text-align: center;">광명천막기업</h3> <p>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선,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피라수, 자비단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p>	<h3 style="text-align: center;">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당옆길) 사주, 격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 style="text-align: center;">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h3> <p>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p>	<h3 style="text-align: center;">우영생기원</h3> <p>동구 독립로 282-10(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궁합, 택일, 도인양성 각분야 개인지도 ☎ 062)236-2655, 010-3646-2977</p>	<h3 style="text-align: center;">나주산약초</h3> <p>나주시 동점문길 8(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없!! ☎ 061)333-4514, 010-3620-7268</p>	<h3 style="text-align: center;">남약장례식장</h3> <p>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오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영가제공 ☎ 061)285-0444</p>
<h3 style="text-align: center;">향촌</h3> <p>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차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 062)371-0583, 010-3947-0005</p>	<h3 style="text-align: center;">三代(삼대)원조나주곰탕</h3> <p>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 061)287-3229, 010-3602-0297</p>	<h3 style="text-align: center;">황금세차장(주)</h3> <p>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원에서 효천1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 062)652-4564</p>	<h3 style="text-align: center;">자동차뱃대리 할인마트</h3> <p>북구 자미로 12(신안동 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p>
<h3 style="text-align: center;">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h3> <p>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p>	<h3 style="text-align: center;">완도전북</h3> <p>나주시 나주로 131(나주신협옆) 산지작송도소매 전국택배가능 ☎ 010-2831-9257</p>	<h3 style="text-align: center;">골프가방수선전문점</h3> <p>서구 차평동 세정아울렛정문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p>	<h3 style="text-align: center;">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 062)224-4869</p>
<h3 style="text-align: center;">참깨와들깨</h3> <p>나주시 나주로 115(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감밥멸치국수전문점 감밥&amp;멸치국수 ☎ 061)332-9992, 010-7103-2556</p>	<h3 style="text-align: center;">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h3 style="text-align: center;">천을귀인</h3> <p>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p>	<h3 style="text-align: center;">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 style="text-align: center;">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	<h3 style="text-align: center;">초대화랑</h3>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